

한국문화교류 소식

38호 2020년 12월 15일 발행·발행인 위호인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04173 서울시 마포구 삼개로 16, 408호(도화동, 근신빌딩 신관)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Corona Virus Pandemic과 문화의 힘



김길남

ICKC 고문, 국제한민족연구재단 총재

지금 세계는 Corona Virus Pandemic의 열병을 앓고 있다. 지난해 중국 우한의 실험실에서 인간이 합성했다고 여겨지기도 하고, 바이러스의 유래와 원인에 대해 여러 이야기들이 나돌지만, 그 파괴력은 이제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정도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무려 6천 2백

만 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감염시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인구 13억 9천만 명의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86,500명에 사망자가 46,341명인데 비해, 인구 3억 2,000만 명의 미국에서는 하루 20만 명이 발생하고 누적 확진자가 1천 3백 20만 명으로 그중 사망자가 26만 5천명에 달하고 있다. 동양 문화권을 대표하는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86,500명이다. 그러나 서양 문화권 대표 국가인 미국은 1,320만 명으로 중국에 비해 15배 가까운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과 중국의 차이는 Corona Virus Pandemic이 편향적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 당사자인 인간들의 대처방안에 따라 차이가 나

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지역별로 독특한 사회를 구성하여 살아오면서 공동의 전통과 문화를 창조하고 축적, 계승하면서 살아왔다. 지금 세계 문화권을 크게 양분하면 동양문화권과 서양문화권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하루 20만 명씩 창궐하고 있는 미국에 미국시민권자로, 영주권자로 혹은 지상사요원의 신분으로 250만 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그들이 Native Asian이라 해서 Corona Virus Pandemic에 자유로울 수야 없지만 120여개 소수민족 가운데 감염률이 가장 낮은 편이다. 서양문화권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전통문화를 버리지 않고 유지하고자 하는 스스로의 노력과 연방 정부의 정책 전환에 힘입어 미국 국내에서는 매년 5월을 ‘Asian Heritage of the Month’로 정하여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까지 책정하여 아세안의 문화유산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다.

이민으로 건설된 다민족 연방 국가인 미국은 이민 초기에는 세계의 다양한 국가와 문화권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모든 이민자들에게 기본 정책으로 ‘용광로 정책(Melting Pot Policy)’을 적용하여 전통과 문화를 모두 버리고 미국화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민자들의 전통과 문화라는 것이 쉽게 바뀌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전통이 미국을 더 위대한 국가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Salad Policy’로 전환했다. Salad를 구성하는 갖가지 채소가 그 고유의 맛과 향기를 유지 할 때 Salad의 가치를 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의 재발견이 이루어졌고, 미국에 이주해온 이민자 문화권 별로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정책전환이 문화행사로 발전해 왔다.



앞에서 말한 ‘Asian Heritage of the Month’가 바로 동양문화권 행사의 대표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양 문화권의 행사는 하나로 통합되거나 결집되지 못하고, ‘Latino Festival’, ‘Halloween Day’와 같이 여러 형태로 나누어 치러지고 있는 형편이다.

산업혁명 이후 외부적으로는 동양문화가 서양 문화에 뒤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양문화의 전통의 깊이와 무게는 서양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자유가 인간사회의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는 미국의 경우 건국신화가 자유라고 할 정도로 자유가 넘치는 나라이다. 한국과 미국 양국에 거주하며 자주 왕래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미국과 한국의 코로나 상황과 대처 방식, 시민의식의 차이를 몸소 실감하고 있다. 지금은 미국에서도 관공서, 학교, 쇼핑센터 등 어딜 가도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만, 필자가 한국에 나오기 전인 지난 7월까지의 마스크를 쓴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의 사회 분위기가 만연해 있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 물리는 과태료가 지금 한국에서는 10만 원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1,500불에 달한다. 그럼에도 양국의 확진자 발생 비율로 보면 한국은 미국에 비해 ‘코로나 청정지역’(?)이라 할 수 있다. 동양문화권이 Corona Virus Pandemic에 강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태권도연맹, 경기 고양시 본부 이전 업무협약 체결



강 석 재

ICKC 이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세계태권도연맹(WT)은 지난 11월 2일 경기 고양시와 WT본부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WT는 2025년까지 본부를 고양시로 이전하고, WT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와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고양시는 WT 본부 이전을 위한 건물을 제공하는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태권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양시가 글로벌 스포츠 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WT 새 본부는 일산 서구 대화동 제3 킨텍스 인근에 건축 면적 4만7천60㎡의 10층 규

모로 2025년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또 WT는 지난 5월 집행위원회 의결을 통해 고양시를 2022년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선정했으며, 대회는 2022년 4월 중순 킨텍스에서 1주일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태권도 모국인 한국에 독립된 WT 본부건물을 갖는 것은 WT 조정원 총재 및 연맹 구성원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이다. 본 기고를 통해 WT 창립 50여년 만에 독립된 WT 본부 건물을 국내에 확보할 수 있게 협력하고 지원한 고양시 측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고양시가 국제 스포츠 산업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다.

지난 1973년 창립된 WT는 현재 전 세계 210개 회원국을 가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산하 올림픽 스포츠 태권도를 관장하는 국제스포츠기구이다. WT 총재는 매 4년마다 총회에서 선출되며 김운용 초대 총재 이후 지난 2004년부터 조정원 총재가 한국인으로 총재직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외국인이 WT 총재가 되는 날이 올 것이고 이럴 경우에 WT 본부 소재지가 변경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다. 이러한 때에 고양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아주 의미가 있으며, 본부 건립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한국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WT 본부건물 건립 이외에도 이번 기회에 한국 민법상 사단법인 WT와 WT 정관에 따른 국제기구로서의 WT의 이원화된 구조를 바로잡아, 국제기구에 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직원의 외교적 신분 보장과 기타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있는 다른 태권도 단체들은 WT를 협업 파트너로 생각하고 한국인 총재가 있을 때 이를 최

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이 태권도 모국으로서의 국제적인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WT 태권도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여 국내외 태권도 학과 및 대학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태권도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으며 졸업생들이 결국에는 '친 한국인'이 되어 전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WT의 태권도 올림픽 종목 유지를 위해 무엇보다 글로벌 스폰서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다시 한 번 한국 기업 및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 WT 본부의 고양시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하는 조정원 WT 총재(右)와 이재준 고양시장(左)
[출처: 고양시청 홈페이지]

2020년 후원하여 주신 분

2020년,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이 헛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석재, 강성구, 강영광, 강영실, 강재근, 고용규, 구병진, 김건길, 김복음, 김소진, 김영규, 김용구, 김용준, 김은자, 김정수, 김정일, 김정택, 김진원, 김진태, 김창욱, 노승락, 류성식, 문영호, 박경명, 박관용, 박기연, 박미나, 박미화, 박신재, 박원출, 박익근, 박인숙, 박청수, 배대환, 성효동, 유영찬, 유지효, 윤문원, 윤윤식, 이병욱, 이상철, 이석중, 이성호, 이명섭, 이용선, 이창걸, 이항구, 이한목, 이효정, 장정용, 장호익, 전영섭, 정상설, 정순영, 정영숙, 정진화, 정현관, 조두연, 조준연, 조평규, 추호석, 표재순, 허원준, 홍경자, 홍계화, 황경애, (재)아시아발전재단, (주)동우들, (주)세협엔터프라이즈, 수풍산업(주), (주)신동, (주)P&H

가나다순, 2020년 1월 1일 ~ 2020년 11월 30일까지

총액 : 41,180,000원

브라질 배우리한글학교의 특별한 이야기



김 동 순

브라질 배우리한글학교장

30년 전에 시작된 배우리한글학교

전 세계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세먼지 같은 바이러스균이 정치, 경제, 문화 등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곳곳에 침투해 인간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강대국의 의미도 사라지고 공해 없는 나라라고 자부하던 외딴 곳의 나라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백년대계의 교육 현상이 달라져 가고 있다. 선생과 학생이 있고 끄적거릴 칠판 하나만 있으면 학교라고 여겨진 시대도 있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서 좀 더 체계를 갖춘 대형 건물과 넓은 운동장이 있어야 학교는 존재한다고 굳게 믿어 왔다.

이런 기본적인 환경이 늘 뒤떨어진, 그래서 아

이들이 많이 오면 학교가 어려워지는 이율배반적인 한글학교가 30년 전에 이곳 브라질에 세워졌다. 바로 ‘배우리한글학교’다.

건물을 빌려 꾸미고 아이들을 모으고 고작 3년 정도 유지하면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비좁아서 옮기고, 건물이 다른 이에게 팔려서 옮겨야 한다. 아홉 번 학교를 이전했고 한국교육원장님 여덟 분을 만나면서 30년을 끈질기게 버틴 셈이다.

브라질한국학교(poli logos)에 주말 한글학교 교장으로 3년간 부임하면서 배우리한글학교를 잠시 접었지만 브라질한국학교가 결국 문을 닫게 되면서 다시 배우리한글학교를 열게 됐다. 운영의 어려움은 이렇게 또 메꾸어 나갔다. 세인트프랑수아제학교(ST.France School) 국어 교사로 채용돼 나름 넉넉한 보수를 받게 되니 학교 운영에 한 부분이 감당됐다. 개척교회의 한 층을 빌려 쓰기로 하고 수업 장소를 마련했다. 아이들이 다시 모이고 꽤 그럴싸한 환경 때문에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3년간 유지했던 학교는 개척교회가 문을 닫으며 또 위기를 맞았다. 학교 혼자로서는 도저히 그 큰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어 ‘이젠 정말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시설을 정리하면서 한편으론 끝을 예감하면서 2019년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방학에 들어갔다.

배우리한글학교가 어찌될지 바라보는 시선은 2020년이 되자 또 나에게 짐이 되기 시작했다.

사명처럼 나를 짓누르게 되니 해결 방법은 퇴직금으로 다시 학교를 마련하는 일이었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자마자 다시 건물을 얻어 번듯하게 또 꾸렸다. 두 달도 못 채우고 2020년 3월 17일 코로나로 모든 학교의 출입이 막히며 배우리한글학교도 같은 상황에 봉착했다.

준비된 자에게 주는 고마운 혜택

상파울루한국교육원은 교육원대로 수업 마련에 고심했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는 대처 방안이 시급했다. 교육원에서는 5월 신속히 온라인 수업에 관한 연수를 했고, 배우리한글학교 역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 온라인 수업에 들어갔다.

코로나의 사태를 미리 알아 대비한 것처럼 2019년 12월 상파울루한국교육원(원장 오정민)으로부터 나에게 임무가 주어졌다. 학생들의 보충학습 과제인 학습지를 만들어 브라질 전체 한글학교에 부교재로 사용하게 만들라는 신규 교육사업이었다. 사업 기획안을 만들어 재외동포재단에 보내고 승인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때야말로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는 학습지가 현장학습을 대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알게 된 오정민 상파울루한국교육원장이 재차 재외

동포재단에 청원을 했고 그 결과 예산의 3분의 1 정도의 후원을 받게 돼 모든 인력과 유지비를 절감해 바로 실행에 들어갔다. 매주 교육원 홈페이지에 올려 간접적인 교육 방법의 하나로 활용하게 된 학습지는 적절한 교육 대응 방침의 하나로 현재도 계속 실행 중이다.

배우리한글학교의 수업 방향은?

배우리한글학교는 내가 할 일과 네가 할 일을 따로 구분할 여유 없이 온라인 수업과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며 아이들의 흠어진 마음에 안정을 주어야 했다.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학교 월세였다. 학비도 받을 수 없게 되니 유지하기 어려운 건 나만의 일인 듯싶었다. 모든 학교가 출입이 통제된 상황에서 배우리한글학교는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학교의 건물을 닫기로 하고...

다시 학교의 문을 닫기로 했다. 건물을 닫는 것이지 학교가 문을 닫는 것은 결코 아니라며 매일 주문을 원다. 앞서 가는 자는 진리를 따르는 자라 했던가. 유일하게 학습지, 온라인 수업, 동영상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로 소문이 나다보니 수업이 미비했던 학교의 학생들의 편입이 자연스러워졌고 특히 상파울루 이외의 지역에서 수업자 등록이 증가했다. 온라인 수업이 가져다 준 혜택이라 말하면 옳지 않은 표현일까?

온라인 수업과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용도의 건물로 다시 축소해야했기에, 새롭게 마련했던 학교의 모든 시설물, 책걸상을 비롯한 식당의 식탁과 의자들을 신속히 처분해야만 했다. 난감했다. 마침 브라질한인회에서 책걸상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게 돼 선뜻 한인회에 기부했고 식당의 기물을 비롯한 나머지 시설물들은 선교지로 보냈다.



▲ 학교의 책걸상을 브라질한인회에 기증하며

새로운 수업 형태의 한글학교

부담이 됐던 월세가 절감되니 영상 제작과 온라인 수업에 전문인 교사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온라인 수업의 형태를 확대하고, 시간도 조정해 주중에도 실시하고, 학습지와 동영상의 내용을 병행해 가정에서 쉽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매주 교재를 만들어 이메일로 각 가정에 전송하고 있다.

학습 보조자료로 상파울루한국교육원 홈페이지에 올리는 학습자료는 교과 내용에 관한 것 이외에 역사, 생활회화, 문법, 토픽(TOPIK) 등 다양한 자료가 별도로 있으니 수업의 과제가 더 풍성해졌다. 현재 이 학습자료는 다른 학교 학생들과 교사들도 보충 수업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한글학교의 매력

학생들의 등하교를 도와줄 통학 버스도 없고, 넓은 운동장도 없고, 누구하나 간식거리, 점심식사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후원자도 없어서 늘 혼자 외로웠다. ‘보람을 두둑이 챙기자’는 나의 삶의 방식을 고집함에 만족해야 했다.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나의 학교생활은 바쁘면서도 또 다른 매력을 느끼게 한다. 수업의 형태가 달라지다 보니 아이들이 더 소중하고 가깝게 느껴진다. 집 안의 풍경과 아이들이 앉아 있는 책상을 보며 가정 방문이 따로 필요 없음을 알게 된다.

브라질에 모든 현지 학교 시스템이 온라인이다 보니, 학생들이 기계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부모님이 일일이 학교를 데려다 주지 않아도 전화 연락 한 통이면 수업 참여와 출석 확인이 용이하다. 점심 식사를 해주는 시간과 노력



▲ 배우리한글학교의 온라인 수업 모습

대신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해준다. 손편지는 기본이다.

교사들은 가정에서 수업 준비를 하며 이메일과 카카오톡, 화상으로 회의하고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수업 진행에 관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받는다. 온라인 수업 장소는 하나의 만남의 장소가 돼 버린 셈이다.

전파를 타고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온라인 수업. 우리가, 아니 내가 35년간 해오던 대면 수업보다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어쨌든 교육을 해야 하니까, 앞을 보며 살아가야 하니까...

‘이제는 끝이다, 정말 끝이다’ 했던 나에게, 학습지와 학교 운영에 대한 재외동포재단의 후원은 다른 길로 비켜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준 고마운 버팀목이다.

전통은 세월의 썸이 아니다. 세월의 썸답게 그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전통의 힘인 것이다. 비대면 수업의 모범 사례로 새로운 교육의 모습을 먼 이국땅에서 실현하려는 브라질 배우리한글학교에 격려와 응원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모두에게 바란다.



◀ 배우리한글학교가 제작한 동영상 자료들



타슈켄트 주말한글학교, ‘제17회 한인 백일장 시상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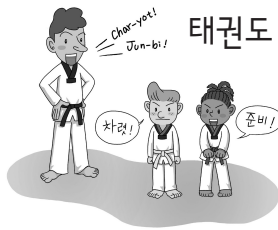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말한글학교(교장 하성백)가 주최한 ‘제17회 한인 백일장’ 시상식이 지난 11월 10일 오후 4시 타슈켄트 세종학당에서 열렸다. 타슈켄트주말한글학교는 제574돌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0월 24일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온라인 백일장을 실시했다. 이번 백일장에는 유치부부터 일반(성인)부까지 한인동포 80여명이 참여했으며, 주제는 ‘내게 소중한 것’이었다. 이날 열린 시상식에서는 한인회장상 1명, 주우즈베키스탄대사상 1명, 세계한인무역협회장상 1명(일반부 2명) 등 총 18명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강창석 한인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와중에도 학생과 일반부의 적극적인 참여로 첫 온라인으로 개최된 백일장이 한인들에게 기쁨을 주는 행사가 된 것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하성백 타슈켄트주말한글학교장은 “시상품을 지원해 준 우즈베키스탄한인회,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민주평통, 세계한인무역협회, 지상사협 의회를 비롯해 백일장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타슈켄트주말한글학교는 재외국민 자녀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길러주기 위해 1997년 11월 1일 설립됐으며, 한국 교육과정과 동일한 과정의 교육을 통해 귀국 시 한국학교 적응을 돕고 있다.

[기사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현수 기자, 2020/11/21



▲ 타슈켄트주말한글학교 ‘제17회 한인 백일장’ 수상자 기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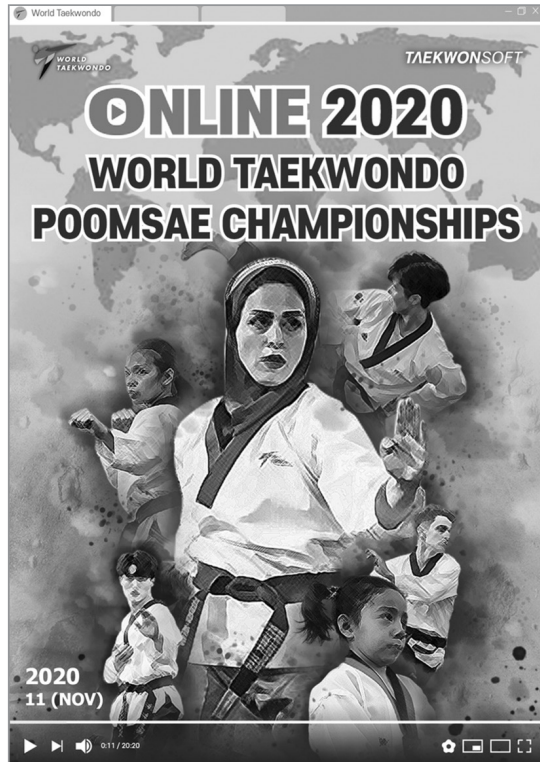
태권도 품새 세계 챔피언, 온라인으로 가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국제 대회 개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태권도연맹(WT)이 사상 처음으로 비대면 세계품새선수권대회를 연다. WT는 11월 11일 “온라인 2020 세계태권도 품새선수권대회를 오는 16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질 이번 대회는 선수가 촬영해 올린 영상을 심판이 보고 채점하는 방식으로 개최된다. 선수는 장소, 시간의 제한 없이 어디서든 자유롭게 출전할 수 있다. 심판위원장은 영상 1편당 선수와 다른 대륙 국가의 심판 7명을 배정하고,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5명의 평균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공인품새 12개 경기 결승전은 12월 7~12일 오후 9시 생중계된다. 하루에 2경기씩 열리며 심판 채점도 실시간으로 해 우승자를 바로 가린다. 오픈 부문의 어린이와 청소년부 우승자에게는 2022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세계품새선수권대회’ 참가 자격을 주고, 가족부 우승자에게는 대회 관람을 위한 항공권 및 숙소를 제공한다. WT는 “온라인 품새대회가 코로나19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분기별로 대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 출처] 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2020/11/11



‘온라인 2020 세계태권도 품새선수권대회’ 포스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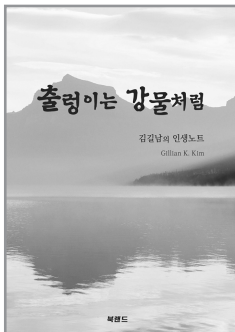
■ ‘이병욱과 어울림’, 조지아(Georgia)에 우리 음악을 알리다

지난 11월 1일(일), 한국과 조지아의 문화교류를 위한 언택트 공연이 양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오후 7시 서울 아르떼홀에서 진행된 ‘이병욱과 어울림 실내악단 콘서트’는 조지아의 국제현대예술전시 기관인 ‘아트리스테리움(Atristerium)’에서 주최한 국제현대예술 ‘ATRISTERIUM 13’의 개막공연으로서, 당초에는 조지아 현지에서 ‘아리랑’을 비롯한 우리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아르떼홀에서 무관중 공연으로 진행되었으며 ‘아르떼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지아 국립박물관에서 생중계되었다. ICKC 회원이자 마리오리음악연구원의 이사장인 이병욱 교수가 이끄는 ‘이병욱과 어울림’ 실내악단과 그 역시 ICKC 회원인 황경애(중요무형문화재 97호 이매방류 살풀이춤 전수자) 예술감독의 ‘어울사랑’ 전통무용단이 출연해 다채로운 음악과 공연을 선보였다. 특히 조지아의 민요 ‘오로벨라(Orovela)’와 강원도 아리랑을 함께 담아내 양국의 민족성과 슬픔을 표현한 ‘조지아와 한국을 위한 아리리(이병욱 작곡)’이 초연되어 본 공연의 취지를 뜻 깊게 빛냈다. 본 공연은 클래식 전문 채널인 ‘ArteTV’에서 11월 19일과 22일 이틀간 방영되며 대미를 장식했다.



■ 김길남 ICKC 고문, 회고록 『출렁이는 강물처럼』 출간

ICKC 초대 이사장이셨던 故 이광규 서울대 명예교수, 현 박의근 재정위원장 등과 함께 2011년 ICKC의 창립 및 출범을 주도한 김길남 ICKC 고문의 회고록 『출렁이는 강물처럼 - 김길남의 인생노트』가 출간되었다. 1942년 출생인 김길남 고문은 시카고 한인회장을 필두로,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장,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 의장으로 활동하며 일평생 미주 교민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외국민의 권익증진에 매진했다. 또한 재외국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국의 해외 이민사 정립에 이바지했고, 각종 문화 활동, 사회단체 강연, 대학 강의, 칼럼 등 집필활동, 수필가로의 등단 등 해외 한민족과 한인사회의 현안문제에 대



해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등 재외동포사회의 주축으로 여전히 왕성히 활동 중이다. 이 책은 한국전쟁, 4·19 등 역사의 격동기를 거쳐, 사우디에서의 기업 활동, 미국 정착 이후 참정권 운동 등 재외동포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 등 필자 자신의 인생 역경을 정치, 문화적인 배경과 함께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한 개인의 충실한 회고록이자 한민족 이민사나 재외동포사회를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그 자체로 흥미로운 역사적 자료로서도 큰 가치를 지닐 것으로 생각된다. 지면을 빌려 김길남 고문의 책 발간을 축하드린다.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2011.03.30. 창립총회 개최
2011.08.16. 사단법인 인가 (문화체육관광부 제2011-29호)
2012.10.02.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166호)
2016.03.30. 총회 및 창립 5주년 포럼 개최
2018.06.29.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
2019.03.29. 총회 및 창립 8주년 포럼 개최

조직 구성

고문 강성구 前 MBC 사장
김길남 국제한민족연구재단 대표
김용구 (주)신동 회장
박갑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관용 前 국회의장, NDI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조남철 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
최불암 예술인

총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이사장 위호인 (주)뉴플러스컴 회장

이사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박익근 재정위원장, (주)P&H 회장
송중국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
조춘연 정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운영위원 윤문원 작가, 인성교육 전문가
이효정 세계한인여성협회 회장
장정용 (사)한국이집트발전재단 수석부회장

감사 전영섭 변호사
박원출 前 한국조폐공사 사장

ICKC 홈페이지 및 회원가입 안내

ICKC는 회원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ckc-seoul.net>입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단체의 공지사항 및 최근 활동 현황, 한국어·태권도 관련 주요 뉴스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소식지 역시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ICKC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 주시거나 ICKC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연락처는 본 소식지 1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 보내 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에 의해 기부금의 15%(1,000만 원 초과분 30%) 비율로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 법인소득금액의 10% 한도로 비용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발전재단

아시아발전재단은 아시아 및 다문화 관련
교류협력사업, 인재양성사업, 공익문화사업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재단입니다.

슬로건 Slogan

Great Asia!
다시 아시아로!



비전 Vision

더불어 함께 가는
아시아



미션 Mission

교류와 협력
나눔과 상생



아시아발전재단 주요사업

교류협력 문화교류캠프, 학술활동 지원, 한민족청년캠프 등

인재양성 아시아·국내·동포 장학사업, 이중언어교실 지원 등

공익문화 해외 태권도·한글 보급, 다문화학생 경제교육 등

